

‘고유가 뚫어라’ 모토 시리즈 ⑩

신고유가 시대 도래하나

WTI 배럴당 67 달러 돌파 2개월 최고치 경신

전문가들 ‘70 달러 넘어 100 달러까지’ 진단도

‘드라이빙 시즌’ 앞두고 수급불안-중동정세 변수

최근 국제유가 동향

연초 하락세를 탔던 국제 유가가 재고 부족과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불안으로 인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WTI 5월물 가격은 배럴 당 67 달러를 돌파, 2개월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배럴당 67 달러대는 지난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유전지대에 강타한 직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배럴 당 70.85 달러에 불과 3.70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

휘발유 선물 4월물 가격 역시 갤런 당 2 달러에 빠짝 뛰어올라 5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유가 상승은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540만 배럴 급감했다는 수급 요인에 의한 것 이어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문제는 세계석유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 이란은 올해 초 EU와의 핵협상이 결렬돼 핵 활동을 재개하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과 협력해 이란 핵문제를 UN에 회부시켜 현재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경제제재를 단행할 경우 석유를 무기화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도 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양측 간의 대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닫고 있다.

이란은 현재 하루 약 4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이중 약 25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다. 이란 석유의 약 절반은 유럽 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8%의 석유 수입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이란이 석유를 무기화 하여 수출을 중단하거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이란 석유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적 봉쇄로 걸프지역 전체의 석유 수출이 중단되면 세계석유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같이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요인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국제 유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향후 국제유가는 이란 핵개발문제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나이지리아 공급차질 재개여부, 미 휘발유 시장 동향, 미 석유재고 증감여부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제유가 전망

올해 국제유가는 앞에서 밝힌 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공급차질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 심화로 당초 전망치보다 5 달러 가량 상향조정된 배럴당 55~60달러로 전망됐으나 최근 들어선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 동향이 지난해 12월에 올해 국제유가를 전망했던 상황과는 올 들어 많이 달라짐에 따라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 전망을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OPEC 총회에서 현 생산쿼터 유지 결정에도 이란 핵문제 UN 안보리 회부, 이라크 정정 불안, 나이지리아 공급차질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으로 국제유가는 당초 전망보다 5 달러 상향조정된 배럴당 55~60 달러로 내다본 바 있다.

나아가 CERA, PIRA, CGES 등 세계적인 국제유가전망기관들도 올해 들어 연평균 국제유가 전망을 지난해 12월 전망치에 비해 배럴당 4~9달러 정도 상향조정한 바 있다.

석유전문가들은 IAEA 정기이사회 결과 이란 핵문제가 UN 안보리 회부됨에 따라 이란 핵문제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란핵문제 악화에 따른 이란원유의 공급중단 등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훨씬 더 가중되는 경우 유가 급등 우려와 함께 고유가에 의한 소비국들의 수요 둔화 또는 외교적 해결 노력에 의한 이란 핵문제 조기해결 등에 따른 유가 안정화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추이로 봐서는 이는 어느 정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 '100 달러설' 신고점 찍나

국제 유가는 연중 유류소비가 가장 많은 '시즌' 이 다가오는데도 휘발유 재고가 감소한 것이 수급 우려에 불을 붙였다. 또 UN-이란간의 핵 갈등도 점차 증폭되는 등 정치적 요인도 악재를 더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선 국제 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100 달러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부니 피킨스 텍사스 석유업자이자 BP캐피탈 회장은 최근 "배럴당 150 달러도 가능성 없는 얘기가 아니다"며 '유가 100 달러설' 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유가가 60 달러 선으로 내려왔기 이전에 먼저 75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조만간 100 달러 선까지 갈 수 있으며 상품 시장에 투자하라"고 권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어 무디스 산하 이코노미닷컴의 매튜 패리 연구원은 "유가가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약세를 보일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지만, UN-이란 갈등이 지속적으로 가속될 경우 70 달러 선 위에서 신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고했다.

원자재 수급불안도 들쭉

국제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등 수급 요인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석유류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기 자금 유입이 계속돼 유가 및 석유류 가격의 불안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 및 동향

정부는 국제석유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이란

핵문제, OPEC 움직임 등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면밀히 점검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최근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최근 국제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신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비 수요관리, 해외자원개발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 정부는 매년 30%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피상적 에너지원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에너지 경쟁력은 기술경쟁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해 함께 성장해나가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틀을 잡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각 분야에 맞는 보급지원제도 마련에도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장기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장기적·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며, 에너지 관련 개별법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국제에너지시장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에너지정책의 환경친화성, 사회적 수용성 및 형평성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